



장 용 육

노령화 사회 걸맞는 시책 추진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결코 좋은 환경의 남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하다. 우선 남구는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36,927명으로 전체인구의 12.7%로 부산지역 평균 12.1% 보다 0.6%가 높고, 전국 평균보다 1.2%가 높은 노년층이 두터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노년층 두터운 남구

이는 소득활동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 구조로 생산적인 소득 활동이 적고, 노인진료비 지출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 시행 35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그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건강보험과 함께, 2008년 7월부터 '사회적 효'를 실천하기 위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은 반면 사회 전반에 진행 중인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진료비의 급증을 초래

하고 있다. 노인진료비는 최근 10년간 5배나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약 46%에 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결국,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데 반해 써야 할 계층은 급속히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복지 플랜 마련

이에 우리공단은 모든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으로 건강복지플랜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해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의 활발한 전개하고 있다. 그 예로 남전동 호안도로에서 매주 월·수·목요일 저녁 8시마다 실시되는 건강걷기운동 교실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되는 건강걷기운동에 많은 남구 주민이 참여하여 올바른 걷기운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건강검진 대상자증 대사증후군 해당자를 선별, 건강검진에서 사증관리까지 관리하여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대사증후군 사업도 실시중이며 또한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건강운동 교실을 운영하여 노인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관리·유지하도록 하여, 노인 건강증진을 향상시킴으로서 진료비 감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무료 건강 측정

우리남부지사는 사무실내 골다공증, 체지방측정 분석기, 혈압기 등을 마련하여 구민 여러분들이 언제든 무료로 자기 건강을 측정, 분석 및 관리도록 하는데 조언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을 사랑하는 구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남부지사 직원 모두는 항상 청렴한 일처리와 고객 만족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장



<198>



낭비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좋겠다.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시민 누구나에게 여름철 불볕더위를 막아준다. 남구청에서 도시 곳곳에 부산 기후에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계속해서 녹화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정원 수가 아니면 작은 화분에라도 나무와 화초를 심어 도시열섬현상을 막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주영란 기자

■ 나의 생각

신선대 용마바위 살리자



조상영

기억한다. 그 당시만 해도 신선대에는 동네 사람이 주로 찾는 산책길로 해운 희치원 선생과 하늘로 날아간 용마발자국에 얹힌 전설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기억하기로는 신선대 동쪽편 5부 능선쯤에 용마바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말 발굽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던 바위가 공공 근로사업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팡으로 파묻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또 하나 우리가 찾아야 될 문화유산이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신선대 인근의 보오지산 봉수대이다. 몇년전 향토역사연구가 고윤랑군 선생과 봉수대를 찾은 적이 있다. 그 당시 산 정상에는 봉화 흔적이 남아있었고 막사로 쓰이던 집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생은 이렇게 소중한 역사 자료가 사장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눈을 짓구나 시작했고 우리는 시나브로 우리 것을 들판에 해온 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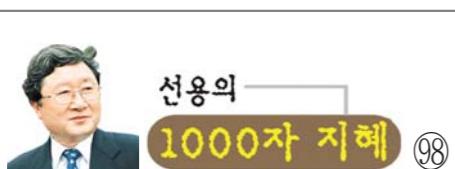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대세다.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크게 환영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거리에 있는 전통을 소홀히 하고 선진문화를 익히느라 정신이 허리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부턴가 각종 미디어에는 외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그곳의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코너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시나브로 우리 것을 들판에 해온 게 조금은 알 것 같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를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까지 든다. 이제부터라도 봉수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고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부서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어렵게 향토역사연구회가 발족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신선대 용마바위를 되찾아 이것과 연관된 역사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남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자료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비단 용마바위 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동마다 산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풀려 남구의 문화와 역사 를 재정립해 우리의 뿌리를 듣는하게 해야 할 때가 요즘이라고 본다.

기자·옹호3동



필요한 것은 당장에

주고받는 것에도 때가 있다. 급한 일로 찾아가 부탁할 때 기분 좋게 바로 내어준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되지만 필요한 때가 지나서 주겠다든지 또 줄 듯 말 듯 애를 태운다면 부아가 머리를 깨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특히 남에게 돈을 빌려려 할 때 그런 일이 많다.

장자(莊子)는 평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았다. 하루는 급한 일이 생겨 잘 아는 부자 강가공(姜公)을 찾아 부탁했다.

“돈 3백냥만 좀 빌려주게 끝 같아 줄게.”

강가공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글쎄, 지금은 없고 한 달쯤 뒤에야 빌려줄 돈이 들어올 텐데 미안하게 되었구려.”

장자가 말했다.

“여기 오는 도중에 나를 불러 세우는 놈이 있었는데 누군지 알겠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말해 봐!”

“누가 나를 부르는가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아니 글쎄 밭笆에 봄이 한 마리가 있지 않겠나?”

“붕어라고? 물고기 붕어 말인가?”

“그래 그놈이 차바퀴가 지나가서 웃물 끼인 길웅덩이에서 팔딱거리며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넷틀 속에 있어야 할 네가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붕어가 하는 말이 그 이유를 밟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물이요. 숨을 쉴 강물을 길어다가 살려달라고 했어. 내가 맡겼지. 나는 지금 강가공을 찾아가는 데 길이 좀 멀어서 내일 이맘 때쯤 애를 끊어 이곳을 지날 것이니 그때 넷틀을 가득 길어 살려주겠다고 했지. 그러자 붕어가 벌컥 화를 내며 뛰라고 하고 했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런 광경은 우리나라

“그래, 붕어가 뭐라고 했어?”

“붕어가 하는 말에 나도 놀랐어. 바다나 강처럼 많은 물이 필요로 하는 물은 물만 된다고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물을 길어주지 않으면 내일 이 끗을 지날 때쯤 말라 죽어있을 거라고 절박한 말을 했지.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하니 끔찍했어.”

“알겠어, 지금 당장 빌려주지!”

줄 것 같으면 기분 좋게 빨리 주고 안다가더라도 남의 쪽박을 깨트려서는 안 될 것이다.

번역문화가

공중질서 꼭 지키자

얼마전 운동하러 집을 나섰다가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평상과 벤치에 담배꽁초와 맥주캔, 떡다 버린 텀텁, 음료수 등이 남겨져 있어 기분이 무척 상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깨끗한 거리와 성숙된 공중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숨이 나왔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잘 먹고 놀다 가면 그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화가 나기까지 했다.

얼마 전 부경대 정문에서 경성대 방면으로 걸은 적이 있다. 오랜만에 이곳을 찾으니 예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우선 담장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예전에 비해 훨씬

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힘든 요인일 것이다. 내가 먹고 사용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지정된 곳에 버리거나 가져가 집에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타인을 배려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공중도덕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남이(문현4동)

걷기 좋은 거리 선정

얼마 전 부경대 정문에서 경성대 방면으로 걸은 적이 있다. 오랜만에 이곳을 찾으니 예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우선 담장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예전에 비해 훨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산대중교통·박석석>

불필요한 전선 제거 노력

불필요한 전선을 제거해 달라고 하신 강민2동 강민수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한전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이나 가로변의 가

전선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전파관리소,

한국전력남부산지사·윤혜영

주식회사케이티남부산지사·조성진>

코오롱 스포츠 대연점

삼악회 지원 이벤트
모든 구매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가능
백화점 상품권 사용 가능

경성대 푸르지오 KT 1번출구 코오롱 스포츠 구. 남구경찰서

051-628-9696, 010-4544-8067

매월초 개강!!

12개국어 전문 MLS 외국어학원

www.mls.co.kr

기초문법	日本語	이태리어
영어회화	中國語	독일어
TOEIC	스페인어	베트남어
TOEFL	프랑스어	터키어
SAT	러시아어	아랍어

외국어학원 상담문의 610-1500

경성대 맞은편 21센츄리 O/T 12F

민정아노래교실 · 팝송노래교실
댄스스포츠 · 통기타 · 우쿨렐레
드럼 · 생활마술 · 하모니카

대표 / 가수 민정아

황령타운 대남 교자로
삼익빌딩 대남 모지동
문화空 간 2F

기념음반제작 · 가요레슨 · 음치클리닉

701-7072 남구 대연3동 8-2번지 2층

부산남구신문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朴景鎬 / 편집주간河仁相
부산광역시 남구 끝골로 19(연동) 남구청 대전분관(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